여성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0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정읍지점 거래고객
(주)범농 임종배 대표

IBK기업은행

IBK 창립 65주년 |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새로운 희망의 활짝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더 든든하게
소외된 이웃을 더 행복하게
미래세대를 더 찬란하게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IBK기업은행이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ON IBK | ON-IBK는 '포용금융'과 '사회공헌'을 통해 세상 모두(온)를 더 따뜻하게(온) 만들고자(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IBK기업은행의 사회공헌 브랜드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을 위한「IBK 장학금 및 치료비」
맘·가정 양립을 돕는「IBK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IBK 예술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IBK 사랑의 밥차」
고립·은둔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위한「IBK 희망나비」
다문화·구성원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IBK 다문화사랑」

지역·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사회 실현
발달장애인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IBK 드림윙즈」
국립공원 보호와 환경 보전의 가치를 나누는「IBK 자연나누리」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IBK 희망디자인」

본 광고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ntents 2026년 10월호





04 **여성시대 특집**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이달의 편지**
'집으로 가는 길'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범농 임종배 대표

76 **코너 속 편지**
'남자의 숙명' 외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응원하는 즐거움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해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10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성주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언, 신지호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쿵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거창한 결심은 _____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동귀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잠시 멈춰 섰던 일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출근길의 정체, 컴퓨터를 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밀린 이메일, 다시 이어지는 사람들과의 약속. 언제 쉬었냐는 듯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며칠 쉬었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과 조바심이 남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연휴가 다 지나갔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렀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이면 이런 마음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한 해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 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했나' 돌아보게 되고, '남은 시간 동안 뭐라도 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생깁니다. 마음은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 몸은 조금 더 쉬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면서도, 이제 시작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양가감정(Ambivalence)'이라고 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휴가 끝난 뒤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게을러졌나', '의지가 약해졌나' 하며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직 쉬고 싶은 나와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내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

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줄다리기는 때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엉뚱한 일에 눈을 돌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울수록, 또는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시작은 더 어려워집니다. 휴대폰을 잠깐 들여다보고,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지' 하며 다른 일을 찾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안도감이 반복되면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데 시간은 줄어들고, 결국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 하지?'라는 자기 비난까지 더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씨름하는 데다 이제는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룬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비난으로 마음부터 지치게 되는 셈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연휴가 끝난 뒤나 연말이 가까워질 때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 분은 긴 연휴를 앞두고 밀린 일을 정리하고, 운동과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보니 제대로 끝낸 것은 없고, 해야 할 일만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에는 어김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 했네요.' 그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도, 빈틈없는 계획표도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을 만큼 작게 나누고, 그중 하나를 직접 해보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지' 대신 '오늘 저녁 집 앞을 10분만 걷자.'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대신 '일단 책을 펴고 첫 페이지만 읽어보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는 필요한 행동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여러 번 말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고 끝내는 경험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해보니 되더라'는 작은 성공이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강조하는 '자율성(Autonomy)'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오늘 하루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한 해를 위한 거창한 결심부터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조금 작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남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

가족을 챙기느라 놓쳤던 나만의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다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밀린 업무를 전부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늘 꼭 끝내고 싶은 한 가지를 먼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것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남은 몇 달을 한꺼번에 바라보기보다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과 기대에 맞추느라 분주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괜찮습니다. 답을 곧바로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매 순간 완벽한 답을 골라야 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선택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나는 왜 결정이 두려운가』에서 균형이

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라고 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여전히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연휴가 끝났다고 곧바로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한 해를 서둘러 만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느라 지금의 나를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각오보다 내가 선택한 작은 움직임 하나일지 모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어,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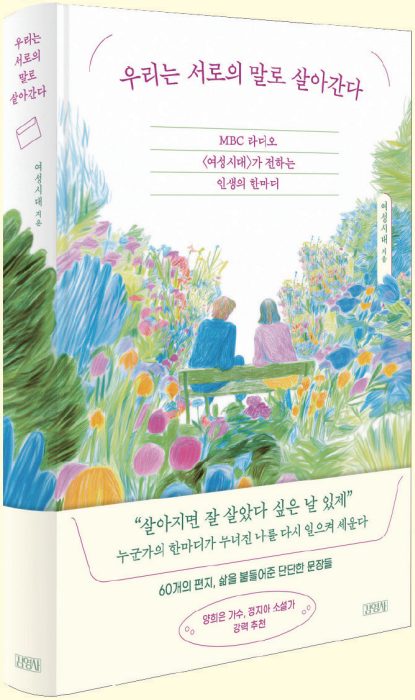


MBC 라디오 여성시대

“살아지면 잘 살았다 싶은 날 있제”

누군가의 한마디가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화제의 신간



여성시대 지음 | 324쪽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소설가
★★★
《그러라 그래》
양희은 가수
강력 추천

“40대 끝자락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람답게 키워준 터전은 〈여성시대〉 편지들이었다.” 양희은 가수 추천

Tel: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김영사



12 집으로 가는 길
16 신개념 생태 수다
20 아들의 독립
26 편의점은 생기지만
31 우리는 재혼 가정
34 참새 구하기
38 세 모녀의 커밍아웃
41 똑버스 이용
44 호의와 존중
48 나를 다시 살게 한 사람
54 김밥집 사장으로 살기
59 남편의 3종 4덕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집으로 가는 길

박천원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얼마 전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불과 며칠이면 돌아갈 집을 무려 10년에 걸쳐 온갖 고난을 겪으며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자니 문득 저의 젊은 시절 어느 날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서울 누나 집까지 어머니가 주신 간장 한 말을 나르던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저는 서울로 취직했고 경기도 능곡에서 결혼해 살던 누나 집에서 통근하던 때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능곡 누나 집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휴가차 목포 어머니께 내려갔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메주를 쑤어 달인 간장 한 말을 싸주셨습니다.

목포 터미널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주고 고속버스에 실어주기까지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버스로 서울까지 5시간 30분이 걸리던 시절,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 짐칸에서 간장통을 내렸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한 말짜리 막걸리 통에 시커먼 조선간장이 들어있었는데 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경기도 능곡 누나 집까지 가려면 그 무거운 걸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가서 당시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라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비로소 버스정류장이 나왔지요.

그것뿐일까요? 능곡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수색에서 능곡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했고 능곡역에 내려서도 15분쯤을 더 걸어야 누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간장 한 말이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찌어찌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차라리 막걸리면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텐데'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것이니 길에 버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돈이 얼마가 들든 택시라도 타버렸을 것 같은

데 그때는 돈이 너무 아까워 감히 그런 생각조차 못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 간장통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누나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마쳤습니다.

그 많은 간장을 누나는 다 어찌했는지 지금도 궁금하고 어머니께서는 그 많은 간장을 왜 싸주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여쭤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간장뿐인가요. 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도라는 섬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목포에 일자리를 구하셔서 저와 형을 데리고 살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여지없이 "어머니 일 좀 돕고 오라"며 저를 시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봤자 일요일 오전 정도나 도울 수 있었고 저녁엔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고구마며 쌀을 잔뜩 싸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고 지고 목포 유달산 산등성이 아래에 있던 집까지 날라야 했지요.

어느 날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보통 두 시간 반이면 진도에서 목포에 도착할 배가 4시간도 넘게 걸려 일요일 한밤중에야 목포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중 나오기로 한 형마저 나와 있지 않더군요. 혼자서 비닐 포대 자루에 가득 든 고구마며 쌀자루를 이고 지고 목포 자취방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그 여

름날 누나 집까지 날랐던 한 말짜리 간장의 무게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른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마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해피엔딩으로 한 편의 영웅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요.

저 역시 어떻게든 집으로 잘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저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영웅이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은 잘 이겨내며 살아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무거운 간장 한 말을 나르게 했던 어머니는 자식 인생에 큰 밑그림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말이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자기 인생의 멋진 영웅이 되길 바라셨던 걸까요?

"어머니, 그래도 간장 한 말은 너무하셨습니다!"

이상, 택배도 무엇도 없던 시절 먹고살기 위해 고향의 먹거리를 이고 지고 도시로 나아가던 가난한 섬 소년의 성장기였습니다.

Letter 02

신개념 생태 수다

신순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두 분 말씀 들으며 '나도 참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왜 그동안 못 적었을까'하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70세 혼자서 아주 신나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 신순희입니다. 남들은 외롭다며 친구들과 모여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바로 '자연'이거든요. 눈만 뜨면 휴대폰 하나 들고 집 앞 작은 개울과 '틀못'이라는 저수지로 산책을 나갑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길을 걸으며 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찍고 기록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생물 관찰 동아리 회원들과 틀못을 도는데 이상하게 새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겁

니다.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먹고 다들 헤어진 뒤 미련이 남아 혼자 다시 틀못을 찾았죠. 그런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저수지라 절대 올 리가 없는 큰고니 11마리가 저 멀리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감격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고니들이 도망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마른 수초 사이에서 귀여운 너구리 두 마리가 꼬물거리며 놀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다녔어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이 난 저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 좀 보세요. 너구리예요!" 자랑을 시작했죠.

그러다 데크 길 한쪽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망원경으로 수초 속을 아주 '전문가'처럼 관찰하는 까만 뿔테 안경의 앳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너구리 구경시켜 주려고 다가가 물었죠.

"학생, 뭐 관찰하고 있어?"

"쉿~ 여기에 아주 귀한 새가 왔어요."

"그래 혹시 너구리도 봤어? 안 봤으면 내가 너구리 있는 곳 알려줄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관찰을 딱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저기 혹시 틀못 관찰하시는 신순희 씨 아니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길 가다 만난 중학생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다니!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어… 어! 어… 학생,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당황해서 어버버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은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며칠 전에 생물 기록 앱에서 틀못 생물 자료 보다가요, 제가 노래기 종류 이름 올린 거 채택해 주신 분이 신순희 씨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저도 기억 못 하던 걸 그 어린 학생이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죠.

"대단하다! 몇 살이니?"

"16살 중3 올라가요."

너무 기특하여 부모님이 관련 일을 하시냐고 묻자 전혀 상관없고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가 예쁜 새를 본 뒤로 새에 푹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70세 할머니와 16살 중학생의 '신개념 생태 수다'가 터졌습니다. 학생은 최근 찾아온 새 이야기를, 저는 식물과 곤충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저수지를 돌았죠.

그러다 제가 "너 혹시 멧비둘기랑 까마귀 집 지은 거 볼래. 몰래 가야 해~" 하고 데크 길을 걷는데 앞서가던 학생이 갑자기 입에 손가락을 대더니 "쉿~" 하더군요. 그러고는 데크 밑 습지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을 보냈습니다. 어두컴컴한 데크 밑에 새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휴대폰을 들고 몸을 구부려 겨우 3컷을 찍자마자 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학생, 이 새 이름이 뭐야?"

"흰눈썹뜸부기요."

오호라! 그 귀하디귀한 철새라니 어린 학생의 깊고 진지한 내공에 감탄하며 "오늘 너무 고마웠어~" 인사하고 돌아서려

는데 학생이 당당하게 한마디를 얹습니다.

"전화번호 주고받아야죠."

순간 또 당황해서 "어… 전화번호 주고받아도 되니?" 학생은 거리낌없이 자기 번호를 척척 불러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54살 차이를 뛰어넘어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생 이름은 김지윤(가명)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나이에 16살짜리 남사친이 생기다니!' 너무 놀랍고 설레서 동아리 톡방에 '나 오늘 이런 친구 만났다!' 자랑 글을 쓰고 있는데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윤이한테 문자가 띵동 오더군요.

<지윤입니다. 지금 '깝짝도요'가 있어요. 여기 위치 찍어드릴게요.>

사진과 함께 위치까지 딱 찍어 보낸 겁니다. 요즘 애들의 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행동력이라니. 저도 부랴부랴 답장을 보내고 현장으로 다시 달려갔죠.

진흙밭이라 도요새를 못 찾고 서성거리고 있으니 지윤이가 제 팔을 꼭 잡고 방향을 가리키며 "저기요. 사진 찍으세요!"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지윤이 덕분에 그날 평생 처음 보는 귀한 새를 두 마리나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당당하고 솔직한 마음 표현이 참 부럽기도 하고 54살이나 어린 친구 덕분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었던 아주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지윤아, 덕분에 할머니 매일 산책하는 길이 더 신나졌다! 고마워."

Letter 03

아들의 독립

박경화 | 서울 동작구 만양로

기어코 탈이 나고 말았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하고 목이 부어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다. 병원에 다녀와 약을 챙겨 먹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나니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몸을 쓰는 노동은 못 하겠구나 싶었다.

정신을 차리고 집을 둘러보니 서운한 마음보다 10년 이상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고 홀가분했다. 이 작은 방에서 아이는 잘도 견디다 나갔다. 내가 유방암을 앓게 되면서 대구에서 서울 병원까지 오가는 길이 너무 멀기도 했고 마침 군 제대를 앞둔 아들도 대학 생활을 끝낼 때까지 방을 얻어야 했다. 몸도 아픈 데다 경제적으로 두 집 살림을 건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함께 살까?" 하고 물었다.

"저야 엄마랑 함께 살면 좋지요."

중학교 때부터 대안학교 기숙사 생활로 독립 아닌 독립을 했던 아이라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들은 선선히 엄마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해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살이. 대구의 작은 아파트를 처분하니 학교 앞 전세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돈을 조금 더 융통해 오래됐지만 정갈한 한옥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고 나면 하루 사이 뛰어버리는 집값에 가진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나 겨우 집을 살 수 있을 지경이었다. 아이가 학교를 편하게 다니고 나도 병원에 지치지 않고 다녀야 했기에 흑석동 학교 앞에 전셋집을 겨우 구했다. 서울 학교 앞은 월세가 주를 이루었기에 전셋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2년 기한을 살았을 때 집주인은 아들이 들어와 산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뭐 어쩌겠는가.

아들이 교통비도 줄이고 학교 가는 시간이라도 줄여 공부에 매진하길 바라는 마음에 학교 앞을 고집했는데 그것이 병폐였다.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던 집이었지만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돈을 지불하면 바로 저당을 풀어주겠다고 했고 집 없는 설움과 이사 스트레스를 겪던 나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지난번 집보다 더 많은 돈을 보태 전세금을 건넸다. 하지만 차일피일 핑계를 대던 집주인은 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고 부동산은 이사를 당신이 결정했으니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집주인은 딸들의 남자친구들을 각각 방 하나씩에 전입신고를 해놓았고 맨 마지막 입주자인 나는 겨우 8백만 원만 받아든 채 망연자실, 눈앞이 노란 세상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마지막까지도 통성기도를 같이 하러 가자던 집주인 아줌마와 법대로 하라던 부동산 중개인의 대답은 창과 화살이 되어 내 마음을 발기발기 찢어놓았다. 사기로 집주인을 형사, 민사 고소해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판결문 종이 몇 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차상위수급자 자격을 취득했다. 월세방을 구하고 회색빛으로 가득한 집안에서 앞으로 살아 나갈 일이 아득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들은 아픈 엄마 걱정이 먼저라고 했다. 그럴수록 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는 사이 3년 넘게 매달 3만 원씩 적금을 들어 하와이 여행을 가자고 계획해 두었던 날짜가 돌아오고 있었다. 친구들은 가서 툴툴 털어버리자고 했고, 이 정신에 미치지 않고서야 하와이를 즐길 수 있겠냐 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여행 경비가 모두 날아갈 테니 그 돈이 또 아까워 주섬주섬 가방에 짐을 욱여넣고 하와이로 갔다. 친구들 모두 내 눈치를 보느라 자꾸 말을 걸며 챙겨주는 것도 미안해서 같이 여행 분위기를 맞춰주기로 마음먹었다. 천당 아래 999당이라 했던가. 빅아일랜드 화산이 끓어오르는 대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하와이를 돌다 보니 이 넓은 세상 아래 내가 당한 일은 티끌보다 작

고 한순간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삶, 안달복달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어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냈다. 강의가 없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 시즌이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하고 여행 대신 전국을 다니며 벽화를 그리는 선생님을 따라 일하며 여행을 대리만족했다. 보증금 조금에 매달 월세가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지만 이 또한 내 탓이니 달게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노량진의 작은 임대아파트에 덜컥 당첨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절로 나오는 위치였다. 서울역, 강남터미널 등 사통팔방 교통편이 좋은 데다 아들 학교도 가까운 곳이니 하늘이 나를 돌보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14년을 살았다. 아이가 살던 작은 방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만으로 꽉 차서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미안했다. 빨리 아들이 독립해 나가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던 길의 문은 너무 좁았다. 공부에 실패한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앉아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던 시간은 가슴에 바윗돌을 얹어놓은 것 같았다.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 밖에서 최대한 버티다 귀가하곤 했다.

현관문을 열면 무겁고 어두운 공기로 가득 찼던 그 시간을 지나 아들은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회사원이 되었다.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 짠하고 슬펐지만 닫힌 방문을 보던 것에 비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취직한 아들은 매달 70만 원씩 차곡차곡 내게 돈을 보내주었기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 모았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 대출을 끼고 상도동의 오래된 빌라를 아들 명의로 샀다. 이게 꿈인가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기 이름의 집을 가지게 된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계약금을 치른 후엔 매일 가게를 정리하는 생활용품점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거나 중고 마켓에서 새살림용품 파는 것을 찾아내 살림 구색을 갖추었다. 6월부터는 하던 일도 멈추고 매일 빌라로 가서 집수리를 도왔다. 벽화 그릴 때 배운 페인트 기술로 아들의 집을 크림색으로 아늑하게 칠하고 천장은 실크 벽지를 바르고 싱크볼을 바꾸고 싱크대도 칠하니 새것처럼 변신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오래된 수전과 현관문도 교체했다. 비용이 들긴 했으나 환하고 밝은 집으로 변신했다. 마침내 수리가 끝나고 나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들이 출근한 뒤 아들의 짐을 차로 실어 날랐다. 마침내 아들이 독립을 한 것이다.

이젠 아들이 나간 작은 방을 치워야 했다. 좁은 방에서 말없이 견뎌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청소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한 엄마를 둔 탓에 이 작고 비좁은 방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어 꿈을 접어야 했던 시간. 날개 꺾인 아이를 보며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먼지가 되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방을 다 치우고 좁은 집에 숨은그림찾기처럼 잘 접혀 있던 살림들을 재배치했다. 깨끗하고 넓어진 새집에서는 아들이 새출발하고 홀로 서야 하는 나를 위해서는 쾌적한 나만의 집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다.

괴로움과 힘듦이 덮쳤을 때 짧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긴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어려운 숙제를 마친 듯 홀가분해졌다. 환갑을 훌쩍 넘긴 몸은 그동안 너무 혹사당했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아파서 누워 있어야 했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간다. 아들이 떠난 빈방이 허전하지 않고 되레 꽉 찬 만족감으로 나를 감싼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는 여행 가방을 쌌다. 4년 넘게 쉬는 날마다 꾸준히 이어온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친정 식구들에게는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더 큰 걱정을 끼칠 것을 알기에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 몇 달 사이 우리 집에 찾아온 이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다. 특히 힘들거나 어려울 때 마치 친정처럼 의지하고 속을 내보이던 여성시대와는 꼭 나누고 싶었다.

새 비데를 사서 우리 집에도 달아주고는 시크하게 "저 가요~" 하며 밥 한술 안 먹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누가 뭐래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갈 것이다. 감사한 삶이다.

Letter 04

편의점은 생기지만

김형식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그날은 안녕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부터 작은 일들이 하나씩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던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됩니다."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걷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한테

괜찮냐는 말을 들어봤을까?'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골목을 걷는 데 익숙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슈퍼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내일 사줄게"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습니다. '여기 편의점 하나만 생기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편의점이 생긴다는데 이제 와서는 그 작은 슈퍼가 사라지는 게 아쉽습니다.

처음 그 슈퍼에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하나 골랐는데 계산대 앞에서 고민을 하더군요.

"아빠, 이거 사도 돼?"

"그럼."

그러자 사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네요."

그게 첫인사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물건만 샀습니다. 우유 하나, 라면 하나, 생수 한 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건보다 사장님의 인사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면 항상 들리는 말. "어서 오세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어지는 말. "퇴근하셨어요?"

참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고 집에서는 가족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슈퍼에서는 잠깐이나마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늦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네~ 일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냉장고를 열어 작은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네."

그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힘든 사람일수록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데 순간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날 집에 와서 그 작은 도시락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 들어갔더니 사장님께서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내미셨습

니다.

"머리부터 닦아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사장님,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참 계산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제 가게 정리하려고 해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에 편의점이 들어온대요. 이제 저도 좀 쉬어야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편의점인데. 왜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조금 삐걱거리는 문, 손으로 직접 쓴 가격표,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겨울이면 틀어주시던 작은 난로,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를 꺼내주시던 손길. 그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뭔데요?"

"그냥 집에서 드세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캔 커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그동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는 데 참았던 마음이 터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그 슈퍼에서 물건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안도감.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작은 친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셨나요?'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의 하루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작은 슈퍼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제 하루의 끝은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생길 겁니다.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고 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겠지요. 하지만 제 하루를 먼저 물어봐 주던 사람. 제 얼굴만 보고도 힘든 걸 알아봐 주던 사람. 그 작은 슈퍼의 따뜻한 불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저는 편의점 간판보다 먼저 그 목소리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05

우리는 재혼 가정

애청자



우리는 25년 된 재혼 가정이다. 지나온 25년의 세월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눈을 감으면 빛바랜 사진첩의 첫 페이지처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는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의 지붕 아래로 모였던 날. 서로 다른 흙에서 자란 네 그루의 작은 나무들이 한 울타리 안에 섞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시작이 벌써 25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고백하건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부모라는 이름이 처음도 아니련만 여섯 식구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은 우리 부부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혹여나 내 아이에게 쏠린 사랑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조심성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들은 기적처럼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세상의 얄팍한 편견의 잣대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춘기의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시나브로 진정한 남매로 거듭 나아갔다.

25년 세월을 묵묵히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버텨내 준 사람은 나의 아내다. 넷 중 누구 하나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밤낮으로 가슴을 졸이며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아이들의 밑거름이 되어준 사람.

아내의 헌신과 눈물겨운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든든한 울타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아이 네 아이 구별과 차별 없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로 품어 안아준 아내의 넓은 가슴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키워온 네 그루의 나무가 어느새 웅장한 청춘이 되고 모두가 바르게 성장해 제 몫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품 안의 새 같던 두 딸은 어느덧 예쁜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났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숙제를 다 한 듯 벅찬 보람을 느낀다.

얼마 후면 나의 환갑이다. 조촐하게 우리 가족끼리 식사나 했으면 족하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양가 형제들을 모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다. 나와 아내는 형제자매들이 많아 모두 모이면 30명 정도 된다. 아이들의 과한 지출이 걱

정이긴 하지만 평생에 한 번이기에 눈 딱 감고 즐기기로 했다.

파티가 끝나면 리마인드 웨딩 촬영까지 예약을 해놨다니 그저 과분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얘들아~ 사랑하고 고맙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가자꾸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 당신에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25년 전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했던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얼굴에 늘어간 주름을 미처 살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저마다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니 남은 인생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살아가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절절한 사랑과 헌신 남은 세월 동안 내가 배로 갚으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고군분투 중이신데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Letter 06

참새 구하기

문미선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오전 11시쯤 은행에서 볼일 보고 종종걸음으로 아스팔트 길을 걸어오는데 무엇인가 내 앞에 툭 하고 떨어졌다. "뭐지?" 생각하며 가까이 가보니 참새 새끼였다. 아기 참새가 거기 그대로 있으면 보도블록 색깔이랑 비슷해서 밟힐 것 같았다. 그래서 손으로 잡았다. 아주 작고 귀여운 참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털이 보송보송하고 날개가 제법 자라 따뜻했다. 꼭 잡으면 죽을 것 같고 불면 날릴세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에 풀숲이 있어서 풀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여기 새 둥지가 있나? 생각하며 바로 옆 가로수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파란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까만 둥지가 보였다.

"앗! 저기 둥지에서 비행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구나?"

아기 참새는 눈만 깜빡깜빡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날갯짓할 생각도 없고 날아갈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전이라 아줌마들이 근처 마트에 갔다가 몇몇이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요.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아줌마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번에는 아저씨 한 분이 오고 있었다. "아저씨, 참새 새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난 참새 새끼를 가져가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하고는 지나가 버린다. 맙소사! 누가 참새 새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했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 또 몇몇 아줌마들이 와서 "아기 참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했더니 "못 날면 죽겠지" 하고 또 지나가 버렸다.

나도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데 저 어린 생명을 그냥 두고 가야 하나?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한 청년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다. 청년한테 도움을 청해보자는 생각으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내 말을 못 듣거나 듣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쩌지 하며 마음 졸이다 다가온 청년에게 말했다.

"아기 참새가 떨어져서 풀숲에 있어요~"



청년은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눈을 반짝거리며 참새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저기요! 저기!"

나는 풀숲을 가리키며 참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참새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청년에게 은행나무 둥지에서 비행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나는 혼잣말 비슷하게 청년에게 물었다.

"구청에 연락하면 구조하러 오려나?"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리곤 '섣불리 구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있다며 주위에 어미 새와 아빠 새가 숨어 있다가 사람이 없는 조용할 때 구조하러 온다고 했다.

아~ 맞다! 그제야 기억났다. TV에서 보았다. 언젠가 수리부엉이가 어느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웠는데 그 새끼가 떨어져서 아빠 엄마 수리부엉이가 울면서 찾아다녔는데 새끼 수리부엉이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는 것을.

청년과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갑자기 아기 새는 포르르 날갯짓하더니 풀이 더 많은 곳으로 홀연히 날아가 버렸다.

"어머! 아기 새가 날 수 있었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청년과 나는 박수를 치며 "정말 다행이다~ 엄마 새 아빠 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안심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같이 고민해 줘서 고맙다고 청년에게 인사를 했다. 청년은 씩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린 생명이 죽을까 봐 가던 길을 멈추고 아기 참새를 풀숲에 데려다주셨다니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청년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걸었다.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Letter 07

세 모녀의 커밍아웃

애청자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 이름은 민들레, 둘째는 채송화입니다. 얼마 전 큰딸 민들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

덩치도 크고 까무잡잡하고 식성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큰딸에게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성실해? 따뜻한 사람이야? 알뜰해? 너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줘?"

민들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 합격이야."

거기에 우리 아빠에게는 없었던 유머 감각까지 있어서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갑자기 걱정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

"뭘?"

"우리 아빠 안 계신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적이었고 세 여자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딸 민들레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둘째 채송화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사업을 하며 제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빠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순간 앞에서는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없는 것. 혼주석에 엄마 혼자 앉아 있는 것.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들레야, 네 잘못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숨기고 살아?"

그랬더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나랑 같이 커밍아웃하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10년 넘게 만나면서도 남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나를 불쌍하게 볼까 봐, 혹시 나를 다르게 바라볼까 봐 저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둘째 채송화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송화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래."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말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셨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채송화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엄마랑 알콩달콩 잘 지내셨을까? 두 번째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던 다이어트는 성공했을까?"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세상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생각해 보니 우리 세 모녀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아빠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들레와 채송화는 아이들 아빠가 생전에 아이들을 부르던 별명입니다. 아이들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 준 겁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지어 준 이름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커밍아웃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Letter 08

똑버스 이용

오미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전 5시 30분 모닝콜이 울리면 눈을 떠서 휴대폰을 들고 '똑버스'를 호출할 준비를 합니다. 똑버스에서 통하는 제 별명, 닉네임은 '또랑또랑 배추'입니다. 똑버스는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같이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하게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생긴 것도 자그마하니 귀여워요. 요금도 일반 버스요금 수준이지요. 승객이 호출하거나 예약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맞은 노선을 만들어 승객을 찾아가고 이동하다가 새로운 호출이 있으면 같이 타기도 하지요.

교통플랫폼인 '똑타'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신청했을 때 닉네임이 '또랑또랑 배추'로 주어졌어요. 제가 지

은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출할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데 이번에는 40~50분 후에 도착한다고 휴대폰에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침기도를 하고 몇 가지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맞춰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지요.

똑버스를 타면 딸네 아파트까지 한 번에 가지만 30분 이상 지나도 똑버스가 배정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일반 버스 탈 준비를 합니다. 일반 버스를 타면 세 번을 환승해야 딸집에 도착하는데 제 나이 72세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똑버스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똑버스 생긴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딸네 집으로 출퇴근을 3년 하다 보니 기사님들과 낯이 익어 반갑게 인사하며 다니지요.

며칠 전에는 기사님이 이어폰을 낀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느 방송을 듣고 있느냐고요. 여성시대를 듣고 있다 하니 엄청 반가워하며 여성시대는 요일마다 알찬 코너가 많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여성시대 들으며 감동 많이 받는 찐팬이라고 했더니 제 분위기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편지도 보내라고 하셔서 저도 몇 번 소개되었다고 했더니 저더러 '신춘편지쇼에도 도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또 도전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기사님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여성시대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용기 내서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



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쓴 편지가 방송되었고, 가을 주부 나들이에 초대받아서 용인자연농원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손숙·김승현 씨가 진행했고, 손숙·정한용 두 분이 진행할 때도 편지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딸은 이제는 중학교 수학선생님이 되었네요.

여성시대 가족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Letter 09

호의와 존중

문유경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어제 오전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바로 확인해 보니 올해 1월 내가 중개했던 오피스텔 임차인 학생이 보낸 문자였다. 내용인즉, 방 내부에 있는 에어컨을 작동시켜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밤에도 30도 전후인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다. 먼저 실외기와 보일러가 있는 공간의 바깥 그릴 창을 열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이 창을 열어야 한다는 설명과 다른 세대에서 찍어 둔 사진까지 첨부해 보냈다. 실외기실 창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틀면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 사항에서 적어두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하려고 보니 필터가 없다>는 문자가 왔다. 전에 거주했던 분이 퇴실하면서 내부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에어컨 필터가 없다고 하니 난감했다. 임차인에게 <에어컨 필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자 바로 전화가 왔다. 첫마디부터 '나 화났어요!'하는 목소리로 필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단정할 수 없지만 있어야 할 필터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다고 해서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통화를 계속하다 보니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언짢았다. 나에게 맡겨 놓은 것을 찾아가는 거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할 텐데 임차인의 태도가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다.

"고객님, 통화하는 내내 목소리가 많이 흥분되어 있으신데요. 저에게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자마자 임차인은 소리쳤다.

"돈 받았잖아요!"

무슨 돈인가 했더니 올해 1월에 계약 완료 후 받았던 36만 원 중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었다. 중개 수수료를 받았으니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언제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거다.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입주 후에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멀리 사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아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었건만 이러한 호의까지 당연한 일



처럼 여기는 태도가 불쾌해 임차인에게 말했다.

"고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입주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내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땐 집주인 분하고 서로 소통하여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두 분이 소통이 잘 안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부탁하면 도와드리는 거고요. 저도 제 시간을 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통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말이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의 긴 침묵 속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은 굴

뚝같았지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었다.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는 임차인의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하여 해당 집에 방문했다.

집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실외기실 문은 꽉 닫혀 있었고 에어컨 필터도 있어야 할 자리에 얌전히 잘 있었다. 실외기실 창문을 연 사진과 에어컨 필터 있는 곳까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고 임차인은 확인 후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임차인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모양이다. 에어컨 관련한 사항은 모두 확인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해 드린 뒤 통화 과정에서 나 역시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죄송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내 자식은 내가 잘 아는데 아들이 원래 말이 별로 없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집 안에서 보는 내 자식의 모습과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당연하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서운함이나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작은 호의에도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예의와 존중은 결국 내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되곤 한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의 거울이자 내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닐까?

Letter 10

나를 다시 살게 한 사람

강세동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나는 결혼 34년 차 남자입니다. 34년을 함께 살다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고 손을 잡는 일도 포옹하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평생 이대로 함께 늙어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얼굴은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귀에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는 내 얼굴만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안 좋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혹시 가족보다 먼저 떠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 혈액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몸속의 피가 기계를 통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 투석이 끝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씻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신장…."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저도 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조직 적합성 검사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과보다 아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순간 모두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했고 아내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답을 내리지 못한 채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어. 내가 줄게."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O형, 아내는 B형. 혈액형이 맞지 않는 이식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분들은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몸속 항체를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혈장교환 치료를 견디며 힘든 과정을 버텨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아내가 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 수술복을 입은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보다 아내를 먼저 지켜주세요.'

몇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선물해 준 새로운 신장은 제 몸에 자리를 잡자마자 곧바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철 교수님과 윤혜은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식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교수님들께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환자실에서 40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몸에는 거미줄처럼 수많은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났습니다. 면회도 허용되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기던 날, 아내가 힘든 몸을 이끌고 내 병실 앞까지 왔습니다. 병실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많이 지쳐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지?"

자신도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내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

퇴원 후에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식한 지 9개월, 수술 6개월 차부터는 회사에 다시 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진을 갈 때마다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아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 김지연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내게 주면서까지. 요즘은 가끔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스킨십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말합니다.

"징그럽게 왜 그래?"

그럼 나는 또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 콩팥이 원래 주인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곤 둘이 한참을 웃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은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덤으로 받은 시간 동안 나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웃게 해주며 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내 아내 김지연, 내 인생 최고의 배우자. 그녀는 나를 다시 살게 한 사람입니다.

Letter 11

김밥집 사장으로 살기

조필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는 50대 중반, 10년 넘게 김밥집 사장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김밥집 사장이라고 하면 매일 김밥이나 돌돌 말고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돌돌 맙니다. 그런데 오래 해보니 김밥만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상한 마음도 말고 억울한 일도 말고 직원 걱정도 말고 밀린 계산서 걱정도 말고 가끔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까지 김 위에 같이 올려 꾹꾹 눌러 맙니다.

그렇게 장사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가족이 먹어도 마음 놓일 김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오래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음식 장사는 맛있는 것만 잘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재료

걱정하고 직원 한 명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손님이 "맛있어요" 한마디 해주시면 또 언제 힘들었냐는 듯 신이 납니다. 반대로 손님 한 분의 서운한 말은 집에 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앞치마를 맵니다. 밥을 짓고 당근을 볶고 계란을 부치고 김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맙니다.

제가 참 희한한 사람인 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 궁리를 할 법도 한데 아직도 새로운 김밥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어디에 맛있는 재료가 있다 하면 '저걸 김밥에 넣으면 어떨까?', 지역에 좋은 특산물이 있다 하면 '저걸 김밥으로 말아보면 어떨까?', 축제가 열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한 번 나가볼까?' 그러고는 또 일을 벌입니다. 대회에도 나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공들여 만든 김밥이 선택받지 못한 날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상합니다. "됐다, 이제 안 한다!" 큰소리도 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묵은지가 보이고 땡초가 보이고 참치가 보이면 슬슬 머리가 돌아갑니다. "묵은지에 땡초참치 넣으면 맛있겠는데…." 저도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김밥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몸은 세월을 아주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마른 바비인형 기억하시나요? 팔 돌리고 다리 돌리고 관절을 이리저리 맞춰놓던 그 인형이요. 요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신기하



게 일할 때는 모릅니다. 김밥 말고 밥 짓고 손님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 앉았다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무릎 한 번 펴고 허리 한 번 세우고 어깨 한 번 돌리고 마치 흐트러진 관절을 하나씩 제자리에 끼워 맞춰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입에서는 절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렇게 아프다가도 가게에서 따끈한 밥 냄새가 올라오면 좋습니다.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넣고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김 한 장을 펼쳐놓고 따뜻한 밥을 올리고 알록달록한 재료를 하나씩 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밥이 참 좋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내가 만든 김밥 한 줄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참 좋습니다.

저희 가게는 대학병원 지하 식당가에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장사하다 보면 입맛 없던 환자분이 몇 조각이라도 드시는 모습, 지친 보호자 분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시며 잠시라도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밥 한 끼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그래, 내가 오늘도 김밥 말기를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거창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따뜻한 밥을 짓고 김 한 장을 펼쳐 정성껏 한 줄 말아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지난 10년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했고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울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넘겨보자. 내일까지만 해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말 좋

은 날도 오더라고요. 걱정 하나 없는 날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어렵고 여전히 속상한 일도 생기고 아침이면 관절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 음식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든 한 끼로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성시대 가족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버틴다고 모든 일이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분명 '그때 그만두지 않길 잘했다' 싶은 날이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왔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김밥집 사장으로 삽니다. 아침에는 "아이고야" 하면서 무릎 펴고 허리 세우고 어깨 돌려가며 관절부터 제자리에 맞춥니다. 그러고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밥솥에서 밥 냄새가 올라옵니다. 참기름 냄새가 퍼집니다. 아, 좋습니다! 또 김 한 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잘 버텼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말아보자.'

제 인생도 김밥 한 줄과 참 닮았습니다. 예쁜 재료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맵고 짜고 쓰고 달고 별별 맛이 다 들어갔지만 풀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여기까지 말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 인생의 마지막 김밥을 말 생각이 없습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도 각자의 인생 한 줄 야무지게 말아봅시다. 김밥집 사장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Letter 12

남편의 3종 4덕

최인재 | 서울 중구 세종대로



요즘 들어 아내가 유난히 제 행동을 궁금해 합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도대체 우리 신랑이 뭘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지?' 또 책을 붙잡고 한참 읽고 있으면 '무슨 책인데 저렇게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슬쩍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보면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즘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조금 묘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후스'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스가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내가 "나와 아이들이 모두 죽어야 우리 관계가 끝난다" 단호하게 얘기하더랍니다. 후스는 그 자리에



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후스는 죽는 날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새 제 뒤를 지나가며 책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더군요. 저는 별생각 없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보낸 사진 한 장이 톡으로 도착했습니다. 업무가 바빠 대충 확인만 하고 넘겼는데 퇴근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보니 뭐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내용보다는 프린트한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라는 건가?' 싶었습

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그 궁금증은 현관에서부터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바로 보이는 TV 옆, 화장실 문 앞, 냉장고 문, 컴퓨터 책상 앞, 심지어 침대에 누우면 천장까지. 그건 바로 제가 자주 머무는 곳마다 궁서체보다 더 무서운 정자체로 큼지막하게 출력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 책에 적혀 있던 바로 그 3종 4덕이었습니다.

3종 부인이 외출할 때 반드시 모시고 다녀라.
부인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라.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4덕 부인이 화장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야단맞을 때 쓸데없이 말대꾸하지 마라.
부인이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졌습니다. 종이를 붙여 놓은 위치를 보니 정말 치밀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보이고 컴퓨터를 켜도 보이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보이고 화장실에 가도 보이고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으니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씨익 웃으며 윙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친구처럼 편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함께 살아보니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입니다. 은행 업무며 각종 집안일까지 제가 신경 쓰기도 전에 척척 처리해 주니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장난도 미워하기보다는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한 번은 말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도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종 세 번째에 밑줄까지 그어 놨잖아."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킵니다.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맹종하라.' 거기에 형광펜으로 아주 진하게 밑줄까지 쫙 그어 놓았더군요.

순간 머릿속에서 반박할 말이 수십 개는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는 '5덕, 6덕'까지 추가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그 종이들을 볼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는 그 종이가 가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이대로 평생 3종 4덕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몰래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3종 4덕'을 만들어 붙여 볼까요? 아마 붙이기도 전에 철거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달의 손편지

고마운 명희언니에게

조성분 | 울산시 중구 서동

안방을 끝내고 오후에 집에오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과일박스가 2개나 놓여있었다.
역시나 인천에서 명희언니가 보낸 과일박스 였다.
"아이고! 언니가 또 이래 과일을 많이 보냈네"
혼잣말을 하며 안으로 박스를 낑낑거리며 들여놓았다.
박스를 열어보니 복숭아, 자두, 멜론, 방울토마토까정,
종류별로 맛있는 여름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차곡
차곡 두박스 가득 채워져 있었다.
과일들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으며 본기에도 탐스런
커다란 복숭아를 하나집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껍질채 한입 베어무니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가득 퍼진다.
"너무 맛있네" 하는말이 절로 나왔다.
복숭아는 달고 맛있었지만 왠지 마음한켠이

짠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언니는 인천 모래내시장 입구에서 과일장사를 하고있다.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 자리서 장사를 한다.
멀리있어 도와주지도 못하고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래서 오늘처럼 과일이 올때마다 전화를 걸어 "언니야 인제 과일그만 보내! 여기서 조금씩 사먹으면 돼!" 그러면 "내 맘이야~" 하며 시크하게 대답하는 언니 그리고는
"내가 과일장사 하니까 보내지 안하면 못 보내 맛있게 먹어" 하며 전화를 툭 끊어버린다.
끊어진 전화를 보며 고마운 마음에 혼자 웃고만다.
스무살 어린시절 언니를 처음 만났다.
태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 만난 언니는 나보다 세살위였는데 첫인상이 어찌나 쌀쌀맞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말 걸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중 언니는 그리 친해질 겨를도 없이 언니 나이 스물네살, 좀 이른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바람에 만날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회사 가까운 곳에 사는 언니네 집에 같이 근무하는 언니들과 놀러도 한번씩가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싹싹맞아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속깊고
정 많은 언니가 점점 좋아져 때로 나혼자서도
놀러가 가끔은 회사언니 뒷담화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둘다 허물없이 지내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언니 남편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하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언니는 형부치료차 살던곳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고, 가장이 되었고 억척 아줌마가 되었다.
언니가 보고싶을 때면 시간을 내어 한번씩 인천으로 갔다.
언니는 그곳에서 작은 트럭을 사 야채장사를
시작했다며~ 단속반에 쫓겨 도망치던 이야기며
덧새를 부리는 사람들과 싸움한 얘기들을 영웅담처럼
재미나게 들려주며 같이 웃어댔다.
세월이 흘러 나도 결혼하여 이곳 울산으로 와
산지도 벌써 14년째 내 나이도 60을 훌쩍 넘었으니
언니를 만난지도 40년이 넘은 짧지않은 세월이다.
그 긴 세월동안 내게 변함없이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고마운 언니
5년전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이석증과 불면증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수렁에 빠진듯 힘들때 바쁜

가게일을 다 제쳐두고 그 먼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소고기 가득 봉지를 쓱 내밀며 "고기 구워
먹자 잘먹어야 힘이나지" 하며 또 시크하게 말하는
미소짓는 모습에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느날은 좋다는 영양제를 한가득 사보내 얼마나
당황하고 또 고마웠던지 모른다 언니를 보면 닮고싶은
부분이 참 많다. 부지런하고, 당차고, 쓸데없는 말
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게는 모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언니가 좋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게으른 나를 반성하고 당차고 야무진
언니의 모습을 닮고싶어 물러터진 내 성격을 가끔씩
단련시키기도 한다 언니는 내게 멘토같은 존재이다
언니를 만났음에 감사하다. 그 인연이 이렇게 오래
이어짐에 더 감사하다.
사랑하는 옥명희 여사님~ 스무살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나 만나줘서 고맙고~♡
늘 앞지않고 내생일 꼭꼭 챙겨주는것도 너무 고마워
수시로 이렇게 맛난과일 보내주어 너무 고마운데
언제 여기서 그만식 사먹어도 되니까 그만 보내도
돼돼돼돼돼~~~ <마음에 없는소리 ^^)
항상 건강 조심하고~♡
날이 좀 선선해 지면 우리한번 만나~♡♡
내가 언니 아주 많이많이 사랑하는거 알지~^^



[9566] 어제 처음으로 깨를 털었습니다.



[5054] 전주에 있는 수제 호두과자 집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0273] 여기는 충남 서천 표고버섯 재배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 덕에 신나게 일하고 있어요.



[0581] 여기는 강원도 옥수수 농장인데 지금 따 놓은 옥수수 껍질 벗겨 대형 가마솥에 삶아 냉동창고로 옮기려고요. 갓 따서 바로 삶아 급냉동해 놓으면 한겨울까지 판매할 수 있거든요.



[0177] 빨래방에서 연중무휴 일하고 있어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 평택시 소사로 의
여성시대 가족 최미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 사랑방이었다.
바람이 잘 통하라고 훤히 열어둔 대문으로는
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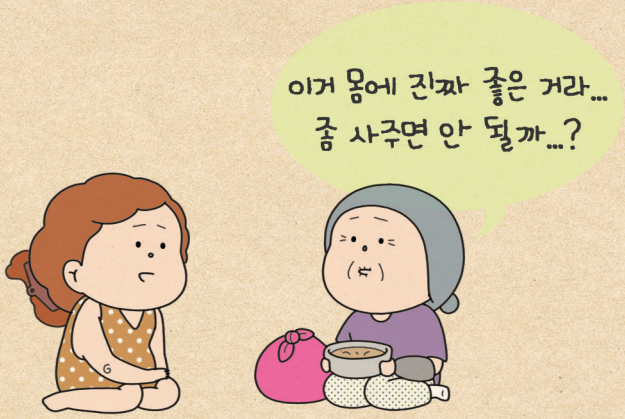
땡볕 아래 머리에 큼지막한 보따리를 이고 다니던
인삼 파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퍼지면
엄마는 여지없이 불러 세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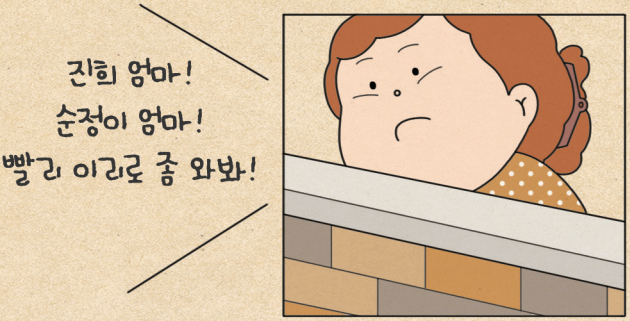
엄마는 할머니를 모셔 놓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대접에 얼음 동동 띄운
달달한 미숫가루를 가득 타 왔다.



할머니는 미안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흙 묻은 인삼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 지친 눈빛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엄마의 부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다.



엄마는 마루에 앉아 머뭇거리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구경이나 하러 온 옆집 아주머니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엄마의 영업력에 못 이기는 척 지갑을 열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미숫가루를 시원하게 드시고
가벼워진 보따리를 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다.



그해 여름은 무척 더웠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는 참으로 깊었다.

작물 맞춤형 트레이로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다

IBK기업은행 정읍지점 거래고객

(주)범농 임종배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범농은 외국산 육묘 트레이가 주를 이루던 시절,
작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트레이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육묘 자재의 표준을 만들었다.
기술로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나눔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주)범농 농업회사법인을 소개한다.

(주)범농은 원예, 화훼, 양묘 등 육묘 생산용 농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주로 농업 및 원예용 특수 화분, 육묘용 트레이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임종배 대표는 1990년대 초 해외에서 도입된 육묘 트레이가 국내 채소 농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작물에 맞는 트레이를 직접 연구·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하였다.

범농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농업용 육묘 트레이와 설비를 개발해 왔다. 임종배 대표가 처음 개발한 트레이는 상부 및 측변에 공기 순환 구멍을 배치해 모종 간의 온도 차를 줄이고 묘의 균일한 성장을 돕도록 설계한 '측면타공 트레이'다. 또한 작물에 적합한 스트레



스를 주어 뿌리 발육을 유도하는 역발상 기술인 'cos법(수용성 황산구리 처리)'을 개발하기도 했다. 작물에 물을 주면 수용성 구조로 처리된 구리가 녹아 나오면서 식물의 과도한 웃자람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트레이 공간 안에서 뿌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뿌리수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순도 99.9% 은나노 성분의 '은트레이' 역시 세계 유일의 고기능성 제품이다. 햇빛을 반사해 응애, 진딧물, 등 해충의 접근을 막고 작물에 빛을 균일하게 공급한다. 또한 계절별 적정 온도 조절 및 육묘 초기 도장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임종배 대표는 단순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장의 기계와 설비를 직접 디자인하여 동일 설비 대비 생산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며 현재 국내 화훼 시장 및 채소 육묘 트레이 시장의 약 65~70%를 점유하고 있다.

범농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행보를 걷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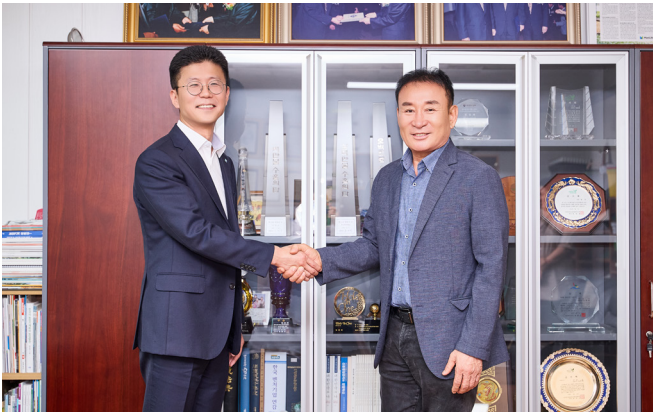
있다. 그동안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였으며 현재 남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30여 개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로 판로를 다각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 다변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향후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미국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단순히 우리 회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회사 자금을 기반으로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정읍지점 전종배 지점장은 "범농은 회사의 위기 상황마다 IBK기업은행과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온 동반자"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할 때 정책금융 상품 등을 활용해 저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다양한 비금융 지원도 확대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정읍지점 전종배 지점장(왼쪽)과 (주)범농 임종배 대표

(주)범농 임종배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독자적인 기술로 제품을 현지화하라.
2. 자체 설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라.
3. 글로벌 판로를 다각화하라.

(주)범농
대표 임종배
전화 063-535-9545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3산단3길 96
홈페이지 http://www.bumnong.com

코너 속 편지

여자는 모른다

77 남자의 숙명
83 말벌이 일깨워준 사랑
88 낡은 작업복
95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100 아들과의 첫 술잔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남자의 숙명

애청자

연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파트 우편함을 보니 자동차 리콜 서비스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어서 그 길로 바로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접수하고 차례를 기다리는데 자동차 수리를 맡기러 온 다른 차들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차 한 대에서 유치원에 다닐 거 같은 어린 형제와 젊은 엄마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아빠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천방지축 어디 놀이터에라도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엄마는 힘든 모습이 아주 살짝 보였고 남편은 뭐랄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는 것처럼 뭔가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가족이 어딜 놀러가는 길인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두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물놀이 안 가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물놀이하는 거 아니잖아."

"응. 차가 조금 이상해서 고치고 갈 거야. 동생이랑 엄마 옆에 가 있어."

남편분이 많이 당황해하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으로 가서 어깨를 살짝 두드리더니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미안해! 금방 끝나."

그러자 아내분이 "응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 차 점검을 해 놓지 않았냐, 차 막힐 텐데 언제 출발하냐?'라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어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딱히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동차 고장 난 것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어쩔 줄 몰라 하며 양손을 비볐다, 허리춤에 올렸다,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며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지. 뭘 저렇게 절절매는 거야'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간단한 수리만 끝나고 그 가족은 저보다도 더 먼저 서비스센터를 빠져 나갔습니다. 그 차가 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남자의 숙명인 건가!'

왜 남자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다 책임지고 용서를 빌어

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남자에게 여자를 지키라고 힘을 조금 더 나눠 주신 것뿐일 텐데. 남자들의 숙명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서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운전하며 가고 있다가 빨간불에 차를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학생은 자기 가방은 뒤로 메고 여학생 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여학생은 휴대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남학생이 양쪽 가방 갑옷을 입은 것도 답답하고 더워 보이는데 그 여학생을 위해서 손 선풍기를 틀어 얼굴에 갖다 대 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으이그~"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 제 아들이 그러고 있었다면 아마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 가방 들어주고 손 선풍기 틀어 바람 쐐 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전 아직 그런 여자분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길 듣고 "아이고 고리타분! 전형적인 꼰대 아저씨네" 혹은 "그 집 아들들 장가가긴 다 틀렸네, 이런 아빠 밑에서 컸으니 아들들도 안 봐도 알겠다." 저를 많이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 있



을 겁니다. 근데 아들을 가진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 남학생이 말은 못 하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나마 학생 때는 같이 공부하는 처지고 용돈도 타서 쓰고 교통수단도 따로 없으니 남자와 여자가 조금은 공평해지는 것이 많을 거라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연애하면 남자들의 숙명은 어떤가요.

"오빠 몇 시까지 집 앞으로 올 거지?" '올 거지?' 하면 좀 나은 거죠. "와~" 하면 콜택시보다도 더 정확하게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차 없으면 연애도 못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아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들 말합니다.

남자들도 남의 집 귀한 아들입니다. 사귄 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생일 때는 무슨 선물을 할지 한참 전부터 고민해야 하고 선물은 최대한 비싸고 좋은 걸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럼 여자분들 선물 후유증 오래가잖아요.

반면 남자들 선물 주로 어떤 걸 받으시나요? "오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수제 쿠키! 맛있죠.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몇 개 안되는 수제 쿠키, 그 자리에서 굳이 뜯으라고 해서 여자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남자의 숙명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꼭 거쳐야만 하는 프러포즈! 이것도 안 하면 여파가 오래갑니다. 프러포즈를 꼭 남자만 아니 남자가 먼저 해야만 하는 건가요? 간혹 여자분이 했다는 얘길 듣긴 하지만 아주 간혹입니다.

그다음은 출산! 출산하는 날 같이 있어 주지 않으면 한평생 원망의 소리 듣습니다. 물론 우리 예쁜 아가가 태어나는 날 같이 있어 주는 거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이 진짜 바쁘고 빠질 수가 없고 다 가족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 전날 술 먹고 놀다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거 빼고는 남편들한테 뭐라 하지 맙시다. 남편들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혹시라도 옆에 있어 주지 못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안해서 아내에게 더 잘할 겁니다.

남자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나이 먹고 이제 힘도

없어 일 못 하면 뭐라 합니까?

"나이 들면 남자들은 다 깨갱이라고,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아니 남자들이 말을 잘 들어야만 밥도 주는 겁니까? 남자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여자들이 징그러워하는 벌레 잡아주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모른 체하고 먹어줍니다. 사실 날짜 지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참아가며 먼 길 운전해 주고 식구들 고기 구워 주느라 항상 식은 고기만 먹고 남자들의 숙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연애하고 계신 커플분들 내가 더우면 다른 사람도 덥고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생각 잊지 말고 서로 아껴주며 예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사연 듣고 혹시라도 맘 상하신 여성분들! 세상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저도 큰아이 낳았을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석 달간 일본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었지만 어찌합니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 다행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러 간 건데 괜찮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아내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남자들 말 안 해도 잔소리 안 해도 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여자는 모른다

말벌이 일깨워준 사랑

애청자

젊었을 때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유행이었다. 한적한 시골에 조그만 집을 짓고 앞마당에 갖가지 꽃과 채소를 가꾸고 집 주변엔 과일나무 몇 그루 가꾸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전북 임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며 발전소 옆 자투리땅에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텃밭에 웬 풀이 그렇게 잘 자라는지 풀과의 전쟁이다. 무더운 여름날 밭 주변에 덩굴풀이 너무 많아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운 없게도 말벌 집이 있는 줄을 모르고 덩굴풀을 제거하니 말벌이 달려들어 세 방을 쏘였다. 시골에

서 벌 쏘이는 것은 예삿일로 치부하며 벌집을 피하여 풀 제거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잠시 후 양쪽 발바닥이 저리는 듯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였던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거 예삿일이 아니구나 싶어 바로 컨테이너(생활공간)로 돌아와 부인을 불렀다.

부인은 다른 곳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소식이 없다. 휴대폰도 컨테이너에 있다.

온몸이 이상하고 숨이 가빠온다. 부인 부르는 것은 포기하고 119에 전화를 하는 중 나도 모르게 바닥에 드러누웠다. 왜 드러누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벌에 쏘였으니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다. 119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듯하다. 스피커폰이라 그랬나. 많이도 물어 보드만. 위치가 어디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호흡은 잘 쉬어지느냐, 심호흡을 해라, 빨리 갈 테니 기다려달라는 등. 누워 있는데 끈적한 침이 목구멍을 막는 듯하다. 침을 뱉으니 침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이래서 기도가 막히는가. 몸은 말을 안 들어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계속 신음소리를 내며 버텨본다.

항문이 열리려고 한다. 누워 있는 채로 바지를 벗고서 누에처럼 움직여서 수돗가로 이동했다. 아차 하면 수돗가에서 볼일을 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계속 항문에 힘을 주면서 심호흡을 계속했다. 죽기야 하겠나 하면서 그래도 모르니 내가 할 짓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심호흡을 해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출동하는 119대원이 두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듯 통화가 안 된다. 나의 말이 둔해진 건가? 한참이 지나서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만 이곳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무엇인가를 자꾸만 물어보는데 말이 나오질 않는다. 구급차 소리에 부인도 쫓아왔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부인은 많이 놀라는 눈치다. 몸은 말을 안 들어도 정신은 말짱하여 대화하는 내용이 다 들린다. 지금 도착한 구급대원은 지역이 다른 인근 구급대에서 지원 도착했는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지역 관할 구급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응급조치 장비가 있다고 한다.

한참 지나 진짜 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해 주었다. 허벅지에 주사를 놓는 것 같다.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전주로 향하여 달려간다.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눈밭에 옷 벗고 있는 것 같다. 턱이 덜덜 떨려 이빨이 부딪힌다.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한다. 춥다고 하니 모포를 덮어준다. 그래도 춥다. 부인이 나의 팔을 잡더니 손바닥으로 문질러 준다. 와~ 엄청 따뜻하다.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는데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구급차 속이 무지하게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단다.

구급대원이 계속 전화를 한다. 10여 군데 전화를 하는 것



같다. 마지막 환자를 받아준다는 곳이 대학병원 응급실이다.

대학병원 응급 병동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 5명이 응급조치에 나선다. 양손에 동시에 주사를 놓는데 혈관을 찾지 못하는지 여기저기를 찔러댄다. 아프다고 해도 소용없다. 천천히 좀 하자고 했더니 응급조치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면서 주사를 놓고 한 명은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적는다. 많이도 물어본다. 물론 치료에 필요하니 조사

를 하겠지.

여기서도 추워서 모포를 2장 덮었다. 혈압이 많이 낮다고 한다. 그래서 춥고 또한 혈관을 찾기가 어려웠나 보다. 양손에 주사를 맞고 시간이 지나니 추웠던 것이 사라지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옆 병상에서 자기 부친을 간호하던 50대 남성이 다가오더니 벌 쏘임이 잦으면 처방받아서 상비 주사약을 비치하라고 알려준다. 사실 작년에도 말벌에 쏘여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것 같다.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다 달려왔다. 병동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5~6시간 병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처방전을 받기 위하여 진료 예약도 했다.

퇴원하는 차 속에서 부인이 울음 섞인 음성으로 과부 되는 줄 알았다고 해서 피식하고 웃었다. 가족들은 농사일을 줄이라고 이구동성이다.

벌 쏘인 곳은 계속 퉁퉁 부어 있고 가려움증이 심하여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벌 쏘임으로 놀라고 고생은 하였지만 몇 가지 좋은 점도 있었다.

가족들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부인의 손이 그렇게 따뜻한지 미처 몰랐고 그날 이후 부인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한 웃음기가 많아진 것 같으며 대화해도 긍정적인 사고로 변한 것 같다. 그래 일은 줄이고 사랑은 늘리자.

여자는 모른다

낡은 작업복

애청자

올해 62살,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제 손톱 밑에는 늘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누칠해도 말끔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참 창피했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처음 손을 잡던 날도 혹시 기름 냄새가 날까 봐 화장실에서 비누로 세 번이나 씻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손은 좀 험해도 돈은 깨끗하게 벌겠네."

저는 그 말에 홀딱 반해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나 그 여자가 제 작업복을 보며 이렇게 말할 줄은요.

"여보, 제발 그건 좀 버립시다."

문제의 작업복은 남색 점퍼 한 벌입니다. 소매 끝은 해졌고

지퍼는 중간에서 한 번씩 걸리고 가슴에는 오래전 정비소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내 표현을 빌리면 '걸레도 그것보다는 깨끗하다'일 정도입니다. 아내가 새 작업복을 사줘도 며칠 입다가 저는 슬그머니 그 옷을 다시 꺼냅니다. 한번은 아내가 몰래 종량제 봉투에 넣어놨더군요. 제가 기겁하며 꺼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명품이야? 문화재야?"

저도 모르게 버럭했습니다.

"나한테는 문화재보다 귀해!"

그날부터 아내는 그 작업복을 '우리 집 국보 1호'라고 불렀습니다.

"국보 입고 출근하십니다!"

놀림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비 일을 시작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동네 카센터 막내로 들어가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공구 정리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스패너를 놓쳤고 여름에는 차 밑에 누워 일하다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술을 배운 뒤 30대 중반 대출까지 받아 제 이름을 건 작은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고장 난 차가 제 손을 거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손님이 "사장님, 차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해주면 하루 종일 아팠던 허리도 싹 낫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

기고 나니 공구를 잡는 손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 한 사람의 인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가장이라는 말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정비소 근처에 대형 정비업체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월세와 직원 월급을 먼저 챙기고 나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정비소 괜찮아?" 물으면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차가 없어지겠어? 걱정하지 마."

남자들이 참 이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이 정비소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비대 구석에 앉아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차 안 고쳐?"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다 놀러 갔나 보다."

그런데 아이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군요.

며칠 뒤에 아들과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약속했던 운동화였습니다. 아들은 제일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라놓고 가격표를 보더니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아빠, 그냥 다음에 살래."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다시 운동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신어. 아빠가 운동화 하나 못 사줄까 봐?"

카드를 내밀며 웃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음 달 카드 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정비소에서 장부를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운동화 한 켤레를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아빠라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출근하려고 작업복을 입는데 가슴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밑에는 자동차 그림도 있었습니다. 바퀴는 네모였고 자동차보다 제가 더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솜씨였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작 9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몰래 한 번씩 꺼내봤습니다. 그러다 종이가 닳을까 겁이 나 작은 투명 비닐에 넣어 정비소 개인 사물함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손님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은 날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도 그 쪽지를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공구를 잡았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그 하루가 쌓여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들은 자랐고 저도 늙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노트북을 연결해 고장을 찾는 세상이 됐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단하는 걸 보면 가끔 제가 구식 공구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차 밑에 누워도 멀쩡했는데 이제 1시간만 쪼그리고 앉아도 허리가 먼저 퇴근하자고 합니다.

결국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기름 냄새 좀 그만 맡고 삽시다."

제가 장난으로 물었습니다.

"나 출근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떡하려고?"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보다 국보 1호 냄새가 먼저 그리울걸?"

마지막 영업 날. 30년 가까이 올렸다가 내렸다 했던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려는데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묻은 바닥도, 낡은 공구함도, 제가 누워 수천 번 올려다봤던 리프트 밑바닥까지 그날따라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네가 여긴 웬일이냐?"

"마지막 날인데 와봐야죠."

아들은 정비소를 천천히 둘러보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그 작업복 이제 저 주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걸 가져가서 뭐 하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그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서 작은 투명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빠가 이 옷을 못 버린 이유가 있다."

20년 넘게 간직한 쪽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한참 바라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예요?"

"그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너는 잊어버렸겠지만 아빠는 힘들 때마다 이거 봤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업복과 쪽지를 함께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돈 버니까 좀 쉬세요."

그리고 작업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기름 묻은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아들 앞에서 그냥 실컷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 국보 1호는?"

"아들한테 물려줬어."

"별걸 다 유산으로 남긴다."

제가 웃으며 처음으로 쪽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배고 굳은살이 박인 제 손을 한참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겨우 다섯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여자는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왜 다 해진 작업복 하나를 못 버리고 녹슨 공구 하나를 서랍 깊숙이 간직하는지. 어쩌면 남자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버텨온 자기 인생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그 가족의 짧은 한마디에 기대어 30년을 버텨왔다는 것을요.

여자는 모른다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애청자

여자는 모릅니다. 남자의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가장 막강하고 지독한 천적은 바로 '누나'라는 것을요!

저에게는 세 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오빠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삼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삼촌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서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넌 남자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를 때리면 안 돼. 여자는 아껴주고 지켜줘야 하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는 저를 아주 확고한 원칙, 철학을 갖고 키우셨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때려도 맞아야 하고 절대 힘을 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와 부딪힐 때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야, 그거 내놔."

"싫어! 내 꼬야~"

"아냐,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아니야~"

"내놔! 내놓으라고!"

평화롭게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누나는 늘 탐냈고 무작정 뺏어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티격태격하다 보면 몸싸움이 나기도 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우리 집의 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방어만 하고 얻어터져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엄마가 왔을 때.

"너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으앙~ 엄마!"

"너 왜 울어?"

"기성이가 나 때렸어."

"진짜야? 기성이 너 누나 때렸어?"

"응, 누나가 내 건데~ 누나가~"

"엄마 엄마! 내가 기성이 장난감 이거 만졌다고 기성이가 나 여기랑 여기랑 막 때린 거예요. 나는 기성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성이는 내가 장난감 만지는 거 싫다고~ 으앙~"

누나는 저보다 세 살이나 많았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면 빛의 속도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지어내서 일러바쳤는데 저는 누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억울한 감정에 서러움이 북받쳐서 웅얼웅얼~ 그러니 결국 엄마의 꾸지람은 늘 저를 향했고 어떨 때는 파리채로 몇 대 맞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누나에게 맞고 큰 기억이 몸에 뱄는지 다 큰 지금도 가끔 누나가 무심코 제 앞으로 손을 뻗기라도 하면 "아 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 자동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런데요 서러웠던 기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누나가 입었던 옷, 누나가 쓰던 학용품도 저는 당연하다는 듯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저 어릴 때 앨범을 뒤져보면 제가 세상 억울한 표정을 하고 누나가 입던 핑크색 토끼 내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흑역사'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귀찮은 심부름도 누나보다 세 살 어린 제가 도맡아 했지요. 엄마가 누나에게 뭘 시키면 누나는 어김없이 저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딸아, 슈퍼 가서 두부 좀 사 와."

"네~ 야~ 네가 사 와~"

"싫어~ 엄마가 누나한테 시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다시 시키잖아."

"싫어. 누나가 가."

"이게~ 누나가 시키면 해야지. 어디 쪼끄만 게 까불어?"

누나는 협박도 잘했습니다.

"너 안 가면 저번에 네가 누나 때린 거 엄마한테 이른다?"

그렇게 누나는 심부름도 떠넘기고 방학 숙제 같은 것도 은근슬쩍 제가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는 아주 지능적으로 저를 부려 먹었지요.

"야, 빨리빨리! 빨리 좀 와봐!"

"아~ 왜! 무슨 일인데?"

"급해! 빨리빨리! 빨리 좀 와봐!"

"뭐야? 왜 무슨 일인데?"

"어~ 거기 불 좀 꺼줘. 나 지금 누운 자세가 너무 편해. 제발 꺼줘~ 제발~"

누나는 폭군이었습니다. 티브이 리모컨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항상 누나, 냉장고에 하나 남은 과일도 누나 것. 친구들이랑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화합니다.

"왜? 왜 전화했어?"

"야, 나 지금 독서실에서 나왔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무서워. 좋은 말로 할 때 버스정류장으로 나와라."

"아 뭐래? 나 지금 친구들이랑 게임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할 수 없지. 여행 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게. 전화해서 네가 밤마다 게임한다고. 그래서 나 밤길에 마중도 안 나오고 나는 너무 무섭다고 말할게."

"어디라고? 간다. 기다려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누나가 제발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 성격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남동생의 억울하고 서러운 삶! 맞아도 참아야 하고, 심부름·숙제도 대신하고, 누나가 입던 토끼 내복까지 물려 입고, 게임하다 불 끄러 가고 마중 나가는 이 서러움! 이 설움을 누나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여자는 모른다

아들과의 첫 술잔

애청자

제 아들은 올해 스무 살입니다. 녀석과 제가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길어야 30초입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저녁 먹어요?"

"먹는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늦지 마라."

아내가 한번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은 부자지간이 아니라 경비실 교대하는 사람들 같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제 등에 매달려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니 언제부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에 지쳐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집에 살면서 점점 말 없는 남자 둘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트럭을 운전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셨고 집에 오면 말없이 밥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해 성적표를 내밀었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잘해라."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참 우습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점점 제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잘 봐도 "그래 수고했다." 축구대회에서 골을 넣어도 "다치지만 마라." 속으로는 당장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뻤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그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 한 번은 그러더군요.

"아빠는 내가 뭘 잘해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 입에서는 또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토록 닮기 싫었던 제 아버지 말투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전 군 입대를 앞두게 됐습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아내는 벌써 난리였습니다.

"거기 가서 밥은 잘 먹으려나?"

"요즘 군대 밥 잘 나온대."

아내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요즘 군대를 어떻게 알아?"

맞는 말이라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속옷이며 세면도구며 이것저것 챙겼고 저는 옆에서 "거기 가면 다 있어" 했다가 등짝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 뿐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만 보던 녀석, 밤마다 냉장고를 열며 "먹을 거 없어?" 하던 녀석을 한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말했습니다.

"가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제 군 생활 조언은 고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대를 1주일쯤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들어온 아들이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과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랑 한잔할래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술 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와 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안주는?"

아들이 과자를 흔들었습니다.

"이거면 되죠?"

"야, 아빠랑 처음 마시는 술인데 과자가 뭐냐."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들이 어릴 때 아내가 야근하면 제가 해줄 줄 아는 반찬은 계란말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제는 15년이 지나도 실력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뒤집다가 반으로 찢어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한입 먹은 아들이 물을 벌컥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옛날 맛 그대로네요."

"그렇지? 아빠 손맛은 변함이 없어."

"소금 양도요."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잔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제가 괜히 아는 척했습니다.

"친구들이랑은 마셔봤어도 아빠랑은 처음이지?"

"네."

"그럼 오늘은 아빠한테 제대로 배워."

녀석이 고개를 돌려 한 잔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근데 이걸 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게. 아빠도 30년째 연구 중이다."

한두 잔 들어가자 신기하게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대학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도 할아버지가 어려웠어요?"

제 술잔이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려웠지.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

"서운했어요?"

"많이."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랑 똑같은데."

"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거의 안 하잖아요."

정곡을 찔렸습니다. 괜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끼리 뭘 그런 말을 해."

아들이 바로 웃었습니다.

"거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중학교 때 축구대회 기억나요?"

"네가 골 넣었던 거?"

"그때 아빠는 저한테 '다치지만 마라'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아빠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알아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결승골 넣었다고 며칠 동안 자랑하고 다녔다고."

저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그걸 아들이 알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는 거구나."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군대 가던 날,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가서 몸조심해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운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에 올랐는데 출발할 때 창밖을 보니 아버지가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제 빈방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었겠지요.

저는 아들의 잔에 술을 조금 따라줬습니다.

"아들."

"네."

"군대 가서 힘들면 전화해."

"네."

"돈 필요해도 전화하고."

"네."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이 말 하나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아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망해서 제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녀석이 웃었습니다.

"아빠, 그 말 하는 데 20년 걸렸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줬습니다. 입소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내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괜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금방 나온다."

아들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던 녀석이 갑자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날 아빠가 한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저도요."

"뭐가?"

녀석이 머쓱한 듯 제 눈을 피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그러고는 얼른 돌아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등을 보다가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아들!"

녀석이 돌아봤습니다.

"아빠도!"

아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오래전 그 터미널에서 저 말을 하고 싶으셨겠지요. 다만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겠지요.

여자는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가 된 뒤에도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곤 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하지 못했고 저 역시 20년 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 그날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겨우 배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제대하면 다시 둘이 술 한잔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아들, 한잔할래?"

계란말이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 덜 넣고요. 그리고 술잔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말해주려고 합니다.

"아들, 사랑한다."

이제 그 말은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즐거움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9월 첫 주말 성시경의 '자, 오늘은' 공연은 날씨가 다했다. 물론 나도 올림픽공원에서 몇 번 공연했지만, 88잔디마당은 처음이라 신기했다. 저녁 6시에 시작되면, 나는 마지막 순서라 종일 자리를 지켜야 한다. 공연 전 리허설에 맞추려고 아침 10시 일산 집에서 출발, 밤 11시께 귀가하는 일정이었다.

잔디마당이니만큼 일찍 2시에 입장하는 이들이 앞자리를 선점할 테고, 3시 입장이면 뒤쪽, 그 후 입장은 완전 뒤의 뒷자리 차지가 될 거다. 무대에서부터 객석까지 특대 사이즈였다. 모처럼 너른 공간이라 가슴도 시원했다. 해마다 '자, 오늘은'에 참여하는 일은 숱한 후배들과 함께하는 귀한 기회라서 기분이 좋다.

가수들 사는 동네며 일정표들이 죄 다른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흔치 않으니 말이다. 출연진은 성시경, 권진아, 이재훈(쿨), 원미연, 김광진, 라이사, 거미, 김장훈, 양희은.

일단 공연 전날 첫 리허설을 마친 후, 연남동의 유명한 프렌치토스트 집을 찾아갔다. 공간 안에서 즐기는 젊음들을 보니 비싼 스테이크를 먹듯 잘게 쪼개어 음미하듯 먹는 외톨이 아가씨, 둘이 바라보는 눈에서 불이 붙는 듯한 한 쌍, 바깥마당은 개와 함께 오는 손님들을 위한 거란다. 폭신한 프렌치토스트도 티 한 잔 값도 만만치 않았다. 뭐든 집에서 조달해 만들어 먹는 늙은 주부로서는 아까운 것 같았지만, 매장 안 가득한 버터 냄새가 맛보기도 전에 이미 아까움을 넘어섰다.

나가는데 점원이 오더니 까마득히 오랜 옛 노래를 대면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중현 선생님과의 작업까지 얘기해서 놀랐다. 73년에 나온 노래를 꼽다니… 무언가를 대접하고픈데 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며 귀한 차를 두 가지 챙겨주었다. 세상에! 알바생의 서너 시간 시급을 선물로 받다니!

드디어 공연 첫날 파란 하늘이 예뻤다. 뭉게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비늘구름들이 그림을 그리고, 무대 장치들, LED 화면들이 최대 크기였다. 블록처럼 쌓아 올린 거대한 무대가 경이로웠다.

각자 가져온 깔개 위에 앉음새를 챙겼다. 내 생각에는 나이 제법 되는 이들은 바닥에 앉기 거북스러울 텐데 하는 걱정도 됐지만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괜찮아 보였다. 젊은이들은 '허리가 나가도 좋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죽겠어요' 한다.

저녁이 되며 바람결이 바뀌어 준비해 간 겨울 내복을 위, 아래 챙겨 입고 무대에 섰다. 사실 이런 무대는 늘 긴장되고 떨리고 제정신 차리기 힘들어 아무도 모르는 무대 공포와 싸우고 있지만 야외 공간이 시원해서 그런대로 해냈다.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쯤이면 노래를 부를 일도 떠나간다.

방송 동료인 최유라가 다녀가면서 <큰언니, 컨디션 조절 잘해요. 대기실 의자도 편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오래 대기하는 거 만만치 않겠더라. 오늘도 파이팅!> 톡을 보냈다.

우리의 사례는 기다리는 값이다. 종일 대기하면서 가라앉은 기운을 끌어올려 짱짱하니 공연하는 게 일인데, 조용히 부를

노래를 복기하다가 순서대로 나가 무대에 선다는 게 보통 사람이 보면 별나다고 느낄 것이다.

축제 같았던 '자, 오늘은' 마무리 잘되었고, 결국 공연은 객석의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 출연진들 모두 애쓴 보람 있다고 서로 응원하며 헤어졌다.

여성시대 앞으로 온 짧은 사연 중에 임영웅 공연 티켓 구매를 혼자 힘으로 성공했으며 긴 시간 기다려 얻은 기쁨이라고 자랑한 내용이 있었다. 나는 덕질을 못 해봤다. 우리 때는 누구를 좋아하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끝냈지, 앞에 나서지도 못했었는데, 최근 내가 한 덕질(?)이라면 도쿄에 가서 1박 하며 디자이너로서 팝업스토어를 연 김신영의 꿈을 응원한 일이다. '행님아' 시절부터 좋아했다. 방송국에서 볼 때마다 통통한 볼을 꼬집어주다가 살 뺀 후엔 볼살이 없어져서 그만두었다. 이번에 현장에서 긴장하고 떨고 있던 신영을 보며 팬으로서 응원하는 중장년 아줌마들 마음을 알게 되었다. 수술 후에 내 몸 기운이 채 살아나기 전이었지만 너를 응원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뭐 아픈 게 대수일까? 되도록 표현하고 도울 만하면 도우면 되는 것을. 지겹고 힘들었던 올여름을 가을 바람으로 날려 보내야지.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해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나의 취미는 골프다. 필드에 자주 나가진 못하기에 동네에 있는 실내 스크린에서 즐기기도 한다. 또 주말에는 골프 중계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의 인기가 많다. 그렇기에 골프 채널에서도 여자 선수들의 경기를 주로 중계해 준다.

바로 이 글을 쓰는 오늘 일요일에 있었던 여자프로 경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서론이 길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KLPGA에서 뛰고 있는 최예림 선수다. 1999년생으로 2017년부터 프로 데뷔를 해서 정규투어에 참가하고 있다.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이 있다. 무관의 상금왕. 이유인즉슨 10년 가까운 프로 생활 중에 준우승만 아홉 번을 차지했다. 연장전까지 가서 우승을 놓치는 장면을 나 역시도 몇 번 지켜봤다.

하지만 그만큼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을 많이 했기에

누적 상금도 31억 원에 달하는 선수다. '프로니까 상금만 많이 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오지랖 넓게도 내가 최예림 선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 처음에 우승 경쟁을 놓쳤을 때야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우승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도 2등이다. 그다음에도 우승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다.

또 그 다음에도 또 또. 지켜보는 골프 팬들이 말하기 시작한다. 유리멘탈이라고. 중요한 순간에 늘 샷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아홉 번의 실패를 맛본 선수다. 물론 준우승도 대단하다. 하지만 우승을 코앞에서 놓치는 경험을 아홉 번이나 한다는 건 스스로에게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우리 세대는 여전히 박세리 선수를 골프여제라 부른다.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트러블 샷을 하고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했던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그 이후로 박세리 선수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준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는 그 이후 몇 번의 대회에 참가한 후 골프를 접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실패한 인생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 단지 스포츠에선 1등을 기억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

그런 기준으로 최예림 선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터. 그런 최예림 선수가 이번 주말 또다시 우승 경쟁에 돌입했다. 심지어 2등과 6타 차 앞선 스코어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 이 정도면 아주 수월한 타수 차이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라고 설렁설렁 치지 않는다. 점점 타수를 좁혀오고 최예림 선수는 후반 들어 타수를 잃어간다. 그렇게 한 타 차까지 좁혀지고 지켜보는 나에게도 불안감이 몰려온다. 설마 또다시 스스로 무너지는가. 이제는 지켜보는 모든 팬이 그녀의 우승을 바랄 정도다.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고 결국 한 타 차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제 기대하는 건 드디어 10년 만에 열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우승 후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이었는데 중계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외로 담담한 그녀다. 다른 선수들 스코어를 몰랐다, 그저 나의 플레이에 집중했다는 선수. 그런 건가 인생은. 그저 나의 일을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해 나가는 것. 괜히 내가 더 울컥한 게 민망했다. 그래도 그녀의 우승을 축하한다.

IBK기업은행

IBK 창립 65주년 |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사장님들,
이제 사업
무료로 하시죠"



이 놀라운 서비스들을

IBK기업은행이 무료로 다 알아서

i-ONE 사장님 파트너 자세히 알아보기

카드가맹점 등록 ·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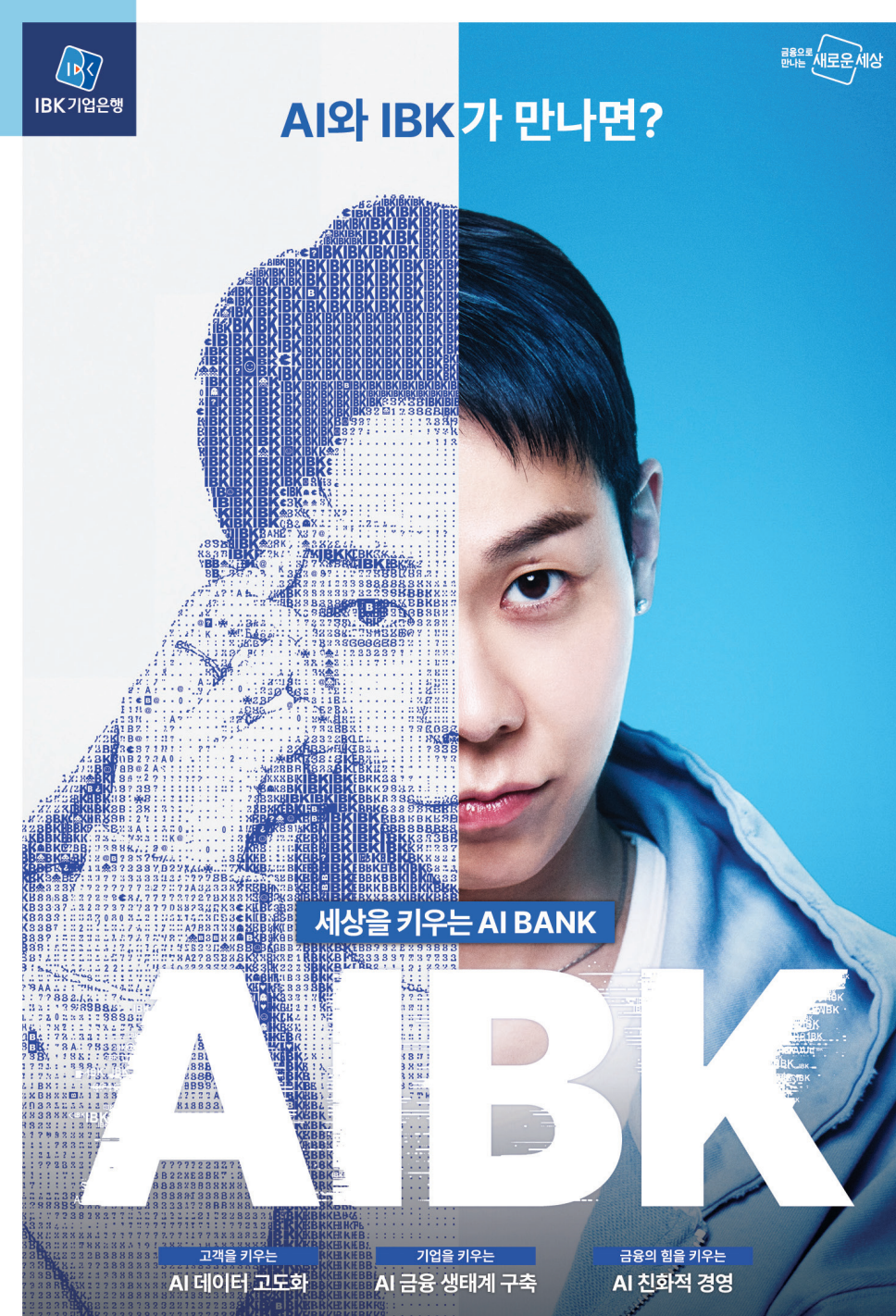
IBK상거래원스톱 자세히 알아보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5773호(2026.07.21.) [유효기간 : 2027.01.31.] · 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이미지 또는 일부)는 생성형 AI로 생성 · 편집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AI와 IBK가 만나면?



세상을 키우는 AI BANK

AIBK

고객을 키우는
AI 데이터 고도화

기업을 키우는
AI 금융 생태계 구축

금융의 힘을 키우는
AI 친화적 경영